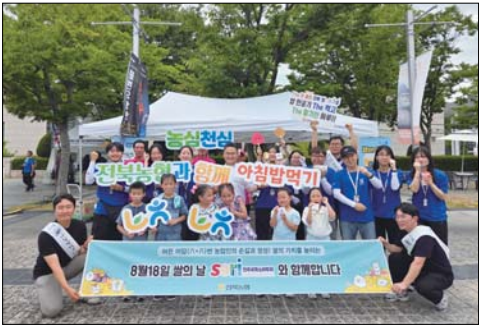




전북농협, 소리축제 현장에서 쌀 소비촉진 홍보

전북농협이 '쌀의 날'을 맞아 전주세계소리축제 현장에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제12회 쌀의 날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전주세계소리축제 현장에서 '농심전심(農心天心)' 아침밥 먹기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농부의 손길에 88번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쌀의 날'을 기념하고, 우리 쌀의 가치와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농협 임직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전북 대표 쌀 품종인 '실리향'으로 만든 떡과 농협에서 만든 시원한 식혜를 나눠주며 우리 쌀의 소비 확대를 홍보했다.

또 아침밥 먹기 운동' 리플릿을 배포하고 농업인의 정성과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는 등 농심전심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밥으로 건강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부스를 마련했다"며 "세 계인이 함께 즐기는 소리축제에서 '소리'와 함께 우리 '쌀'의 따뜻한 온기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채동욱·김혜숙 부부, 새농민상 본상 수상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13일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새농민상 본상(장관 표창)에 조합원 채동욱·김혜숙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채동욱·김혜숙 부부는 2014년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45년간 인삼재배와 한우 사육을 중심으로 농·축산업에 전념하며 농업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지역 선도농업인이다.

새농민상은 자립(自立), 과학(科學), 협동(協同)의 새농민 운동 3대 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진과 영농 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농업인을 지칭하는 영예로운 명칭이다.

곽점용 장계농협 조합장은 "새농민상 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활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김제시는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13일 새일센터 집단상담실에서 2026년 직업교육훈련 '반려동물 안모펠트 굿즈 디자인과장'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협력망에는 교육훈련기관 유관기관, 산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해 반려동물 안모펠트 분야의 시장 동향과 산업체 수요를 공유하고, 수료생의 취·창업 연계 및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수료생의 취업 및 창업 연계 방안, △온라인 판매, 플리마켓, 지역행사 참여 등 판로 개척, △교육생 작품의 상품화 및 실무역량 강화,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산업체 관계자들은 교육생들이 제작한 작품을 실제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의 완성도 향상과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플리마켓, 지역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교육생들이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판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생 작품의 홍보 및 판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행사 참여를 신청하는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료생의 취·창업 연계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임숙희 완산구청장, 19개 동 릴레이 주민간담회 나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임숙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19개 동을 순회하는 '동별 릴레이 주민 간담회'에 나선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13일 첫 방문지로 풍남동을 찾아 주요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대표들과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이날 송암마을과 자민마을, 옥류마을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안전 상황을 살피고,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 방안도 관계 부서와 논의했다.

이어 풍남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송병화 위원장과 동장협의회 김한철 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이숙환 위원장 등 지역 대표들과 만나 민선 9기 시정 철학인 '시민 주권·열린 전주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옥마을 등 관광지와 주거지역이 함께 있는 풍남동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 안전과 관광 주거 분야의 현안을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완산구는 풍남동을 시작으로 19개 동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 건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와 사후관리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구정의 최우선 가치는 현장에 있고 답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있다"며 "19개 동의 현안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런 부서 검토와 사후관리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구정의 최우선 가치는 현장에 있고 답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있다"며 "19개 동의 현안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돌봄교실에서 세계로... 전주시 '2026 글로벌 축제 한마당'

전북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주관

세계 10개국 전통의상 등 체험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2026년 글로벌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과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네덜란드, 캄보디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등 세계 10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아이들은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전통 소품을 직접 만드는 한편, 각국의 전통춤을 배우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별론 매직아트 퍼포먼스 등 참여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마련됐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을 일상적인 돌봄에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넓혔다.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도는 현재 13개 시·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58개소를 운



영하고 있으며, 1,00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일·간접돌봄 등을 제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역 중심의 공적돌봄 시설이다.

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지역별·시간대별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틈새돌봄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단순 돌봄을 넘어 아동의 다양한 경험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장효순 전북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돌봄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돌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마음껏 꿈을 키우고,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은 지역사회사랑봉사단, 남원사회복지관에 지역사회사랑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발달장애 아동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가족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정원호 노조위원장)은 13일 남원시청에서 남원사회복지관에 지역사랑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원사회복지관은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남원시 미성년 발달장애 아동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부모 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달장애 아동 가정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JB와 함께 하는 마음 원표 행복 느낌표' 사업을 제언해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금으로 남원사회복지관은 외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20가정을 선정해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부모 교육인 '바른 원표'를 비롯해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인 '행복 느낌표', 가족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공감 잇기 1DAY 클래스', 가족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행복 마칩표 성장 기록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 개인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달식에는 박승용 남원시 행정복지국장, 강정아 남원사회복지관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조 간

순창군,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 추진

순창군이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위원회와 함께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체 반응속도와 인지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고려해 급가속 등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령층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차량을 운전하고 장치 설치가 가능한 군민이며, 군은 11개 읍·면에서 총 23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자보센터 해외의료봉사단, 몽골서 의료나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간 몽골 우문고비주 달란지드가 드시에서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해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나눔을 실천한다.

이번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치과사회, 한의사회, 치과위생사협회 등 12개 보건의료단체 소속 41명으로 꾸려졌다. 치과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손길이 모여, 적합한 고비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마을에 온기를 전한다.

붉은 모래바람이 이는 광활한 고비사막 한편, 전북에서 온 의료진들의 손끝에서 통증을 잿아들고 웃음이 피어난다.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치과병원, 고비덴탈병원, 에네텔 재활병원 세 곳에 거점을 마련해 치과 진료를 비롯한 한방 진료, 틀니 관리, 구강보건 교육, 근골격계 통증 완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지 주민과 아동 등 1,005여 명을 만날 예정이다.

봉사단은 8월 13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달란자드가드 방풍막 조성지에서 '2026 전북의 숲' 조성 행사를 갖는다.

몽골의 사막화 완화 및 지역 자연 생태계 안정성을 위한 보호립 조성을 위해 몽골 국가운동 10억 그루 나무 심기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협정 등에 발맞추어 2025년부터 보호립 조성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어 오전 9시부터는 에네텔 재활병원 광장에서 현지출발식이 열린다. 달란지드가드 시장을 비롯한 현지 관계자와 봉사단 등 70여 명이 참석해 협약식과 의약품 전달식, 표창장 수여 등을 갖고 본격적인 의료봉사의 막을 올린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임실서 화재증거물 합동감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13일 임실군 소재 화재조사분석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 증거물을 대상으로 화재증거물 합동감정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감정은 화재조사관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감정기법과 전문지식을 공유해 화재 원인 규명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감정에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증거물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남원소방서 김용운 소방경이 감정 지도관으로 참여했다. 최근 순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대상으로 전기적 특이점과 화재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감정은 급속한이경 등 전문 분석장비를 활용해 증거물의 미세한 형태와 변형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전선에서 나타난 용융흔의 형태와 특성을 살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흔적인지, 화재 열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흔적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화재조사관들은 감정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증거물의 채취 상태와 관찰 방법, 분석장비 활용법, 감정 결과를 화재 원인 판단에 적용하는 과정 등을 익혔다. 현장에서 확보한 작은 흔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객관적인 조사 결과로 연결하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만호 기자

군산 나운지구대, 합동 교통안전망 구축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 나운지구대(대장 김대중)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운수업체 및 지역사회와 합동으로 촘촘한 교통안전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나운지구대는 단순한 도로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접근법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나갔다.

마련된 대책을 바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 달여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버스·택시 운수회사 3개소에 진출해 최근 사고 사례 전파 및 자체 제작 포스터 배부 등 맞춤형 교육 실시 완료, 시청과 협조해 주요 사고 다발 구역 거점 3개소에 대형 플래카드를 선제적으로 게시 완료, 교통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및 따뜻한 현장 계도를 실시해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 유도 등이다.

/군산=김민호 기자